

## 대웅, 표적 유전자 암치료제 임상시험

바이러스를 조작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의 새로운 유전자 암치료제가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김주항 교수팀과 대웅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유전자 암치료제인 <DWP418>에 대한 임상 허가를 획득하고 1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4월8일 발표했다.

<DWP418>은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데노바이러스에 릴렉신(Relaxin) 유전자를 주입해 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치료제이다.

또 암세포에 공통으로 활성화 돼 있는 텔로머라제(Telomerase) 효소에 의해서만 바이러스가 복제되게 함으로써 주변 정상 세포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표적 치료 기능도 있어 암세포에 대한 탐색과 추적, 파괴 등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다기능성 치료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2006년 뇌종양과 간암, 자궁암, 폐암, 두경부암에 걸린 쥐에 <DWP418>을 투여한 결과, 암 덩어리가 60일 이후 90% 이상 사멸한 동물실험 결과를 미국암연구소 공식저널(JNCI)에 보고한 바 있다.

김주항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생물학적 제제인 DWP418은 캐나다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유효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했다”면서 “많은 난치성 암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웅은 암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을 위해 임상시료 생산용 GMP(우수의약품관리기준) 시설을 국내 제약기업 최초로 구축했다.

임상시험은 기존 암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1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09년 상반기에 2상 시험에 들어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8/04/08>